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언제 '완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설치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능 확인, 위험성 감소 확인, 기록과 공유까지 마쳐야 '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더 안전한 현장을 위해

안전이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01 핵심 결론



개선대책을 정했다고
바로 완료는 아닙니다.



조치 이행 + 기능 확인 +
위험성 재확인 + 기록·공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실무에서 확인할 4가지

개선조치의 '완료'는 다음 4가지를 모두 확인했을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행 여부

계획한 개선대책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



정상 기능 여부

방호장치, 인터록, 환기장치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새로운 위험 발생 여부

개선 후 다른 위험요인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



허용 가능 수준 확인

개선 후 위험성이 사업장
기준상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는지 확인

03 이런 상태라면 아직 '완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장 상태	권장 관리상태
개선대책만 결정	계획
구매요청서 작성	진행 중
발주 완료	진행 중
제품 현장 도착	진행 중
방호장치 설치 완료	효과 확인 필요
설치 후 정상작동 확인	완료 검토
조치 후 위험성 재확인 및 허용수준 확인	완료
당초 대책으로 위험이 충분히 줄지 않음	추가 개선 필요

04 개선 전·후 비교 예시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작업	컨베이어 제품 이송	동일
유해·위험요인	체인·스프링 노출부 접근 시 손 끼임	방호덮개 설치로 정상운전 중 접근 차단
위험도	빈도 4 × 강도 3 = 12	빈도 1 × 강도 3 = 3
개선대책	고정식 방호덮개 설치	쉽치 완료
기능확인	-	쉽게 탈락되지 않고 위험부 접근 차단 확인
추가 위험	-	정비 시 방호덮개 해체 필요 → 정비절차 별도 관리
최종 판단	! 개선 필요	✓ 완료 가능

05 개선조치 완료 판단 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조치 이행부터 위험성 재평가, 기록·공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확정

2



담당자와
완료예정일 지정

3



개선대책
실제 이행

4



현장에서
기능·설치상태 확인

5



새로운 위험요인
발생 여부 확인

6



개선 후
위험성 재평가

7



허용 가능한
수준 확인 후
완료 처리

8



개선결과 기록
및 근로자 공유



실무에서는 '조치했는가'뿐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줄었는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6 실무 포인트



가장 위험한 판단은 '설치했으니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선조치의 완료는 조치 사실만이 아니라 효과와 재평가
결과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07 완료 처리 전 마지막 점검



- ✓ 개선대책이 실제 이행되었는가?
- ✓ 정상적으로 기능하는가?
- ✓ 새로운 위험이 생기지 않았는가?
- ✓ 개선 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가?
- ✓ 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했는가?

